

크리스마스 由來

窺岩生譯

크리스마스는 何月何日인지 勿論 聖經에 도입고 信憑할만한 文獻도 업스며 또한 傳說도 업스나 最初 古代에 이르러서야 禮儀로 成立되야 祝賀하던 習慣을 詳考하면 東邦教會(希臘教)에서 聖經을 對照하여 聖誕日을 猶太曆의 3월 25일 日도定하였슴은 創世紀一章에 하나 님이 天地와 萬物을 第五日에 創造하시고 第六日되는 날이 12월 25일인 日을 第2아담이라함으로 第一아담으로 因하여 暗黑의 罪惡이 世上에 드리왔스나 그리스도께서 降臨하시니 一新하야 暗黑이 光明으로 다시變하고 罪人이 救拔을 얻었스며 하나 님의 恩惠가 天地에 덮혔스니 舊曆의 1월 1日이 改定되얏다. 이 變을 代承하신 第二아담도 하나 님의 生日에 出生케 하신도다 信念으로 聖誕日을 新年 第六日 爲기 慣習이 東邦教會에서 行하게 되다.

西邦教會(羅馬教)에서는 羅馬教가 東邦教과 同인 聖라오분에서 왔는데 그 降臨한 迫害와 反對가 있어서 聖誕日을 1월 6日로 定하엿다. 漸次 教會가 旺盛하여 짐을 興이라 그리스도께서 誕生하신 日을 十二月二十五日도定하였다 함은 여러 가지가 있다. 最初 古代 信徒들의 想像이 天地 創造를 春節 耶蘇의 晝夜 平分인 三月二十日 頃에 始作된 것으로 想하엿다.

(舊) 20 廿八 以下) 마리아의 孕胎도 亦是 春分日에 始作이다. 古어 즉 十朔되는 十二月二十五日을 基督의 生日이라 칭신日도定한이 適當한 날이라고 하엿다. 亞羅馬國에서는 十二月二十五日은 一年中에 最短日이오 太陽의 此日에 回轉을 마치고 다시 北으로 向하며 높히셔는 新太陽이라 하여 盛大히 祝賀하는 習慣이 古代로 遺來하였다. 心靈界의 恒星인 太陽곳 그리스도께서 全世界 人類의 心靈에 새 로 曙光을 주었스니 聖誕日을 此日도定하였스며 亞羅馬

크리스마스 由來

크리스마스 由來

三五

字伊波傳

國에서 上下人民이 古代로부터 十二月十七日에서 二十三日까지 大慶祝을 하야 貧富貴賤을 勿論하고 歡喜宴樂하며
 終日은 兒童의 名日이라 하며 玩具와 菓子等으로 주고 받는다 贖物이 잇스며 其後 二十五日은 一年中 太陽의 回轉을 맞치고
 이 제 새길은 蘇那나 泰節임으로 森羅萬像은 새로운 生命의 빛을 받으며 天地는 溫和의 氣分을 되느 慶節이라 하야 그 當
 夜에는 聖羅馬의 都市가 燈火를 點하야 不夜城을 이루는 光景이 基督敎로 化하야 傳來하였다, 이것을 靈的의 比喻로 보든
 지 詩的의 意味로 보든지 十二月二十五日은 하 나 닐의 攝理로 千有餘年을 지키며 오든 그리스마쓰이였다.

字 伊 波 傳 (二)

第二 犯罪의 始作

내가 炭坑에서 虛言과 淫談과 悖說을 일삼는 兒童들과 交遊하기 되얏슴으로 不知中에 그들의 惡習에 묻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離解한 言語와 無道한 行動에는 스사로 戰慄을 느꼈기였다 그러나 漸々나의 良心이 그들의 魔性에 醉하
 지 되어 나의 靈魂은 一일노서 第一次의 擊破을 當하였다, 어느 때에는 感謝의 祈禱를 하지만 코그대로 寢床에 누웠는대
 仁慈한 어머니는

「너는 오날 밤 氣分이 돌치 못한 듯하니 代로 내가 祈禱하여 주겠다」하며 熱烈한 祈禱를 올니게 된 일도 만했다,
 그러나 애담은 것이 내가 犯罪의 始作으로 부터 漸々 罪惡이 積흔바다로 드러가게 되었다, 그 때 도 어머니는 落心치 안
 코나를 爲하야 祈禱하며 訓諭하였다, 어느 때에는 勞働의 발길을 變하야 空氣 맑고 景色도 暉平原에서 그 날 해를 보낼 때
 가 一二次가 아니었다, 그럴 때 마다 어머니는 나를 探訪하시며 해매이 신세가 만했다 時々로 善良한 兒孩가 되기를 落